전각에 새긴 선인들 삶의 지혜

돌 위에 새긴 생각

정민 엮고 지음

"돌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마음을 새기는 일이다. 칼은 힘이 좋다. 칼 위에 마음을 얹으면 돌 속에 내 마음이 아로새겨진다."

학문학자 정민 교수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문학자다. 활발한 저술과 연구 활동으로 한문학과 일반 대중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번에 정민 교수가 짧지만 큰 울림을 주는 글귀를 모은 '돌 위에 새긴 생각'을 펴냈다. 본래 이 책은 명나라 말엽 장호가 옛 경전에서 좋은 글귀를 간추려 전각가들에게 새기게 해 엮은 '학산당인보(學山堂印譜)'로, 17년 만에 나온 개정판이다.

2000년 초판을 펴냈던 정민 교수는 지난 2012년 방문학자 신분으로 하버드대 옌칭연구소에 1년간 머물렀다. 그곳 희귀본 서가에서 '학산당인보'의 원본과 마주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책을 열람실로 빌려와 전권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레 촬영했고, 이후 원본에 새로 더해 이번에 개정판을 펴냈다.

過分求福(과분구복)
不如安分遠禍(불여안분원화)

人生須觀結局(인생수관결국)

분수에 넘는 복을 구함은 분수에 편안하여 화를 멀리함만 못하다.

인생은 모름지기 그 마지막을 보아야 한다.

알려진 대로 전각은 서예와 조각, 회화와 구성을 포괄하는 종합예술이다. 돌 하나하나의 구성도 그렇지만 행간에 담긴 옛사람들의 숨결과 의미는 여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짧은 글귀에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자연의 이치, 욕망에 제약되지 않는 자유가 담겨 있다.

'학산당인보'에 서문을 실은 박제가는 책에 실린 전각을 일컬어 "글은 짧지만 의미는 길고, 널리 채집했어도 담긴 뜻은 엄정하다"고 평했다. 또한 "시원스럽기는 멍청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고, 우뚝함은 여린 자를 굳세게 할 수가 있다. 소인은 원망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고, 군자가 바른 기운을 붙들어 세우기에 넉넉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잠언집에는 짧지만 마음을 맑게 해주는 옛글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정갈한 글들이다.

"好學者雖死若存(호학자수사약존)/不學者雖存 行尸走肉耳(불학자수존 행시주육이)"는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한 글귀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죽더라도 산 것과 같고, 배우지 않는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걸어다니는 시체요. 달리는 고깃덩어리일 뿐이다"는 뜻이다.

인생은 모름지기 그 마지막을 보아야 한다는 "人生須觀結局(인생수관결국)"은 무슨 일이든 마지막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분수에 맞는 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過分求福(과분구복)/ 不如安分遠禍(불여안분원화)"는 복을 구하기보다 덕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처럼 책에는 간결한 아름다움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담백한 글귀가 오롯이 담겨 있다. 현재의 자신을 대입해보면 분명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있을 것이다.

정민 교수는 서문에서 한 시절 인연의 증거로 이 책을 펴낸다고 밝힌다. "돌 위에 새겨진 옛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읽다가 어느새 나는 지금 여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한 획 한 획 칼날이 지나간 자리에 간난(艱難)과 고민의 한 시절을 살았던 선인들의 열정과 애환이 담겨 있다. 막상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열림원·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수도자의 영감으로 본 김호석 화백 수묵화

수녀님, 서툰 그림 읽기

장요세파 지음

곤히 단잠에 빠진 아기, 둘러앉아 수박을 맛있게 먹으며 수박씨를 뱉는 가족의 표정, 사랑스러운 아이를 품에 안고 어쩔줄 몰라하는 엄마….

1990년대 화가 김호석의 수묵 인물화는 깊은 인상을 줬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세심히 포착한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를 머금게 되고 마음도 따뜻해진다.

'수녀님, 서툰 그림 읽기'를 통해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의 그림들은 여전히 감동을 준다. 다양한 인물화를 비롯해 동물, 벌레는 물론 세상에 대한 발언도 놓지 않는 그의 그림들은 한참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여기에 이번에는 '수녀님'이 풀어놓은 이야기까지 겹쳐져 그림 감상은 더 큰 즐거움이 됐다.

경남 마산 트라피스트 봉쇄 수녀원에서 수도중인 장요세파 수녀가 '수녀님, 서툰 그림 읽기-수묵화 속의 공백과 대면하다'를 통해 수묵화가 김호석의 작품 99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984년 일본 홋카이도 트라시프트 여자 수도원에서 첫 수도 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35년간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트라시프트는 봉쇄 수도원으로 필수 불가결한 일 이외에는 수도원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으며 새벽 3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오직 노동과 기도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삶을 평생 살아간다.

김호석 작 '독무대'

수도회 입회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장요세파 수녀는 252점이 실린 김호석 화백의 도록을 만나고, 그림에서 느낀 감정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고난 속에서도 찌부러지지 않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정치 풍토와 그 희생자들, 가족, 동물, 벌레, 그리고 종교적 영적 세계로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김호석의 그림에서 "깊은 성찰과 삶의 의미 추구를 통한 줄임과 통합의 결과인 각각의 다른 물길이 일렁인다"고 말한다.

전봉준, 매창, 김구, 성철 스님 등 역사적 인물을 다룬 그림과 소박한 가족들의 모습, 고양이, 거미, 개미 등의 모습을 통해 들려주는 '수녀님'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선·2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바닷바람을 맞으며=레이첼 카슨의 첫 번째 책이자 작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책 '바닷바람을 맞으며'는 살아남고 번식하기 위해 분투하는 각각의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격렬한 투쟁에 입각한 다윈주의적 결정론이 아니라 기회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 바다 생명체에 대한 카슨의 이야기는 고요한 느낌을 전해준다. 생존을 위해 애쓰는 해양 생물에 관해 과학적 정확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의 과정에 은유적·정신적 의미를 부여했다. 〈에코리브르·1만5000원〉

▲어쩌다 우리는 괴물들을 키웠을까=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한다. 서연고의 지나친 특권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견고한 학벌 사회가 키워낸 부끄러운 괴물들은 우리가 왜 그들을 부러워했는지 의심하게 했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아무 근거가 없음을 속 시원히 짚어낸다. 〈들녘·1만3000원〉

▲프랑스식 전쟁술=프랑스가 현대사에서 수행했던 전쟁의 부당함을 묘사하고, 식민주의 전쟁에서 저지른 야만적 행위에 대한 신랄한 고발을 담은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0년대부터 인도차이나 전쟁과 알제리 전쟁, 현재의 화자 '나'가 바라보는 걸프전과 2005년 리옹 폭동까지 다루고 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역사를 체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차별과 배제와 폭력이 난무하는 프랑스를, 우리 세계를 성찰하게 한다. 〈문학과지성사·2만3000원〉

▲똑똑함의 숭배=금융위기, 이라크 전쟁, 뉴올리언스 사태, 가톨릭교회 내 신부들의 아동성추행 사건들로 미국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미국의 진보 시사평론가인 저자 크리스토퍼 헤이즈는 이 상황을 빚어낸 것이 넘쳐나는 정보나 언론의 부패가 아닌, 엘리트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그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할 사람임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다. 저자는 엘리트를 편애하면서도 엘리트 때문에 위기에 처한 미국의 모습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려낸다.

〈갈라파고스·1만7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도도한씨의 도도한책빵=한때 유명했던 동화 작가가 책을 쓰는 대신 빵을 만든다. 한 입 먹으면 책 내용을 술술 떠오르는 마법의 빵을 만들어 팔면서 생기는 재미난 판타지 동화다. 주인공 도도한 작가 외에도 돋보기 영감, 벼슬생쥐 등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이끌고, 리듬감 넘치는 노래 가사가 곳곳에 들어 있어 읽는 내내 유쾌하다. 이 책을 통해 동화 읽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작가와 독자, 도서관과 서점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한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한 권을 읽어도 정약용처럼=저자 이재풍 교사는 한 권의 인문고전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약용처럼 5가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방법은 대유학자 정약용을 탄생시킨 독서법이자 뒤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에 접어들었던 그의 제자들을 훌륭한 선비로 기른 탁월한 학습법이었다. 일반적 독서법은 보통 '읽기' 단계나 고작해야 '독후감' 단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일권오행 독서 교육법에서는 읽기란 독서의 시작일 뿐, 만일 후속 활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독서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북포스·1만4000원〉

▲모두가 잠든 밤에=이 책은 모두가 잠든 밤, 작가 브리타 테큰트럽의 손에서 창조된 꿈속 세계를 담고 있다. 그 세상은 시간적 공간적 차원이 무한하며 중력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 '꿈속'이라는 배경을 통해 책을 읽는 아이들은 현실에서 겪는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고 놀이할 수 있다. 작가는 이렇게 어린 독자들의 마음을 읽은 듯 어린이들이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지만 꼭 한 번씩은 꿈꾸는 세상을 창조해 초대한다.

〈미디어창비·1만3000원〉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 - 203평
147-4, 11, 15번지 - 31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장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무 인 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타 물건과 교환가능"

주인직매 010-3605-5000